하버드대 진학 소녀 "나는 감옥에서 태어났다"

감옥에서 태어난 소녀가 역경을 극복하고 장학생으로 하버드 대학에 진학한다.

▲ 전액 장학생으로 하버드 대학 입학을 앞둔 오로라 스카이 캐스트너. 사진=reddit.com/r/Harvard

하버드 대학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을 앞둔 오로라 스카이 캐스트너(18)는 18년 전 텍사스에 위치한 갤버스턴 카운티 교도소에서 태어났다. 당시 그녀의 어머니가 캐스트너를 임신한 상태로 교도소에 수감중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그의 아버지가 캐스트너를 데려와 홀로 키웠지만 부친이 양극성 장애(조울증)를 앓고 있어 사실상 양육을 받을 수 없었다.

텍사스 몽고메리 카운티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캐스트너는 학생과 지역 사회 자원봉사자를 연결하는 멘토 프로그램에서 장차 평생의 멘토가 될 여성 모나 햄비를 만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만났다. 이후 멘토의 도움을 받은 그는 학업은 물론 다양한 지역 사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캐스트너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지원한 에세이의 첫 문장은 '나는 감옥에서 태어났다' 이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이력보다 빛나는 학업과 활동 기록이 입학의 밑바탕이 됐다.

캐스트너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독서에 열중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지만 멘토 등 주위의 도움이 큰 힘이 됐다." 면서 "멘토를 만나기 전의 삶도 나에게는 큰 가르침이 됐다." 고 밝혔다.

우산 들고 26층서 뛰어내린 어린이 극적 생존

중국에서 4살 아이가 우산을 쓰고 26층 높이에서 뛰어내렸지만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 우산을 들고 아파트 26층에서 뛰어내린 4살 아이를 구급 대원들이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사진=ccwb.cn

지난 26일 후난성 지서우에 사는 A(4)군이 우산을 든 채 아파트 26층 발코니에서 추락했다. 집을 비운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A군을 돌봐주던 할머니가 잠시 A군의 누나를 데리러 1층에 내려간 사이 혼자 있던 A군이 위험천만한 일을 벌인 것이다. A군은 만화를 보고 따라 하려고 우산을 낙하산 삼아 뛰어 내렸다고 했다.

이 사고로 A군은 전신에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사고였지만, 아이의 몸무게가 가벼웠던 데다 떨어지면서 나뭇가지에 걸린 뒤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충격을 다소 줄여줬다.

중국 네티즌들은 "기적적으로 살았다." , "너무 위험한 행동이다." , "부모는 발코니에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아이들이 만화를 보고 따라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지 언론은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들이 만화 속 장면을 흉내내다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며 "어린 자녀들은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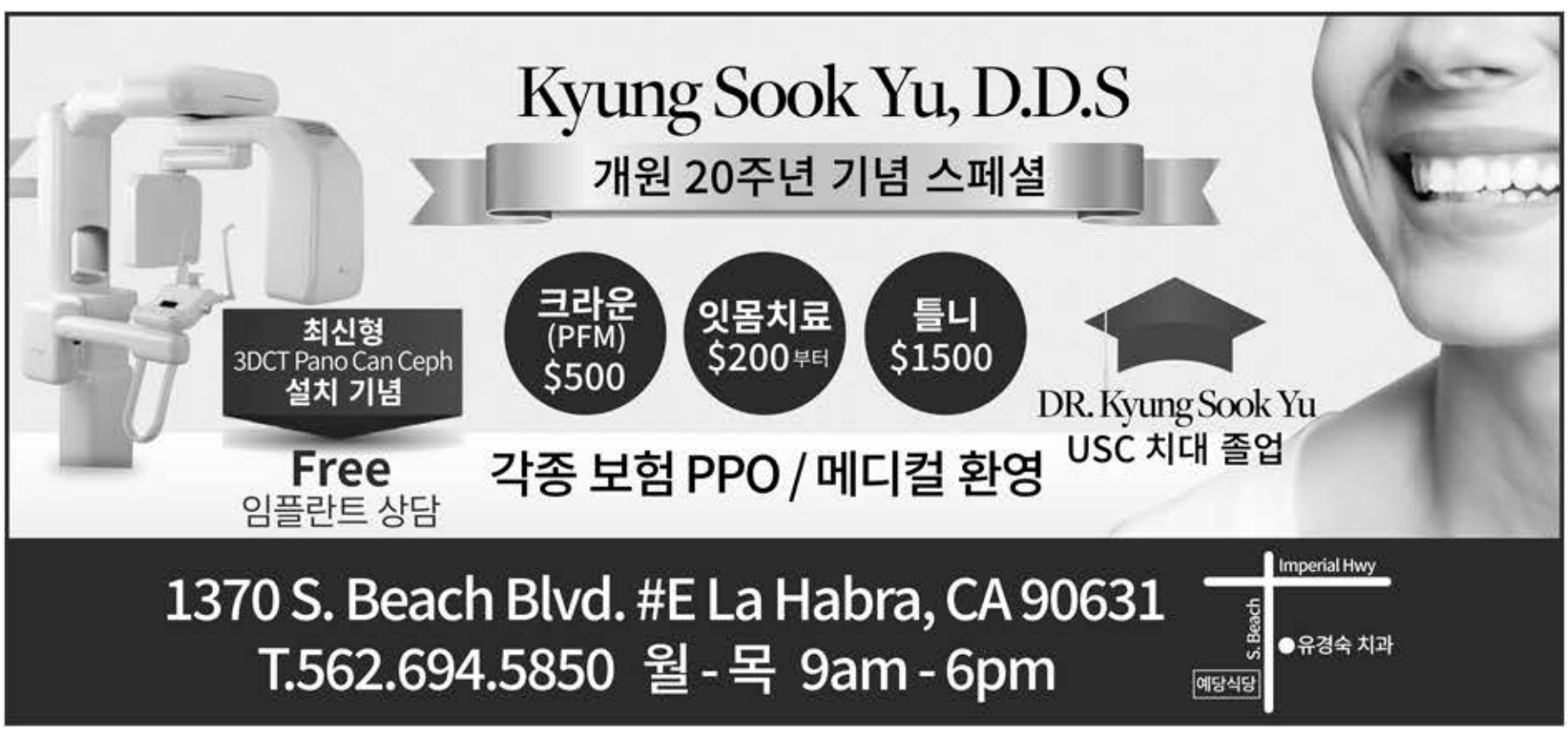
스마트폰 건지려 저수지 물 뺀 공무원

▲ 스마트폰을 찾기 위해 200만 리터의 물을 빼낸 케르카타 저수지. 사진=dunyanews

인도의 한 공무원이 물에 빠진 스마트폰을 찾기 위해 저수지의 물을 뺐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인도의 식품검사관인 라제시 비시워스는 지난달 21일 인도 중부 차티스가르주에 있는 케르카타 저수지를 방문했다. 그는 셀카를 찍다가 저수지에 자신의 삼성 스마트폰을 빠뜨렸다. 이 스마트폰은 1,200달러 상당의 고가 제품이다.

처음에는 현지 잠수부를 고용해 물속에 있는 스마트폰을 찾았지만 실패했다. 결국 그는 30마력짜리 디젤 펌프 2개를 동원해 저수지 물을 빼기 시작했다. 이 물 빼기 작업은 3일 동안 이어졌다. 사흘 동안 그가 퍼낸 물은 200만리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00헥타르의 농지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그이 저수지 물 빼기는 저수지 담당 공무원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서야 중단됐다. 그는 핸드폰을 되찾았지만 스마트폰은 침수 문제로 작동이 되지 않았다.

그는 민감한 정부 데이터가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어 꼭 스마트폰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권한 남용 등의 혐의로 그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해당 지역 관리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그는 정직될 것" 이라며 "물은 필수적인 자원이며 이렇게 낭비돼선 안 된다." 라고 말했다.